『구전 장화,홍련과 영화 장화,홍련 내용』

구전에서는 어머니가 죽고 장화와 홍련이 어여쁘게 자란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데려오고 새어머니는 장화와 홍련을 괴롭힙니다. 장화는 그것을 아버지께 고하고 아버지는 불안해하는 그녀에게 좋은 집안에 시집보낼 것이니 불안해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밖에서 듣고 있던 새어머니는 사람을 시켜 장화를 연못에 밀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홍련은 어떻게 하다가 장화가 새어머니에 의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홍련 역시 연못에 몸을 던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둘은 억울하게 죽은 한을 풀지 못하고 내세에 머물며 자신의 마을에 사또가 부임하면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사또가 하루도 못 버티는 곳이 되어버리는데 어느 날 한명의 사또가 부임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또 역시 하루도 못 버틸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또는 장화와 홍련의 귀신의 한을 들어주고 권선징악을 행함으로 장화와 홍련이 한을 풀고 떠날 수 있게 합니다. 권선징악이 주를 이루는 구전 이야기와는 다르게 영화는 구전과 비슷한 것이 새어머니가 등장한다는 점과 장화와 홍련처럼 두 자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수미와 수연자매가 등장하는데 새어머니가 아이들을 반기지만 아이들은 새어머니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함께 살게 되면서 집안에 기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경질적인 새어머니는 수연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은 새어머니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미의 정신착란으로 인해 새어머니가 동생을 죽인 인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수미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영화가 끝나기 전에 수연과 수미의 어릴적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람을 피운 아버지를 알게 된 어머니가 수연이가 울고 있는 방에 들어와 수연이를 달래고 그 날 장롱에서 목매달아 죽게 되는데 수연이는 그런 어머니를 꺼내려다 장롱에 깔려 죽습니다. 수미와 집안 사람들 모두 장롱이 넘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새어머니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확인했으나 망설이다가 다시금 뒤돌아 나옵니다. 그리고 생각을 고쳐 다시 구해주려 들어가려는 순간 수연과 마주치고 수연은 새어머니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새어머니는 분함에 그들을 구하지 않았고 수연이는 집 밖으로 나가 결국 동생을 구하지 못하고 그 죄책감으로 수연이 정신착란을 겪게 됩니다.

『구전동화 장화,홍련과 영화 장화,홍련의 비교』

우선 구전으로 전해졌던 장화,홍련과 영화는 굉장히 다른 모습입니다. 구전에서는 선악 구분이 뚜렷하고 권선징악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장화,홍련은 사실상 선악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국 마지막에 한을 풀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히려 찝찝한 느낌이 든다면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전동화에서는 연못에 빠져 죽는 것으로 나오지만 영화는 장롱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 속에서는 새, 시계 등 여러가지 퍼즐들이 숨겨져 있지만 구전에는 그런 요소들이 없습니다. 소리 역시 구전동화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됨으로써 공포감을 조성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수연이의 경우에는 정신착란을 겪어 실제로 새어머니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구전에서는 새어머니가 실제로 장화와 홍련을 죽이는 나쁜 짓을 합니다.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새를 죽여 이불에 숨겨두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중 새어머니가 수미를 괴롭히기 위해 들어왔다가 침대 안에 죽어버린 새를 발견합니다. 이 장면이 구전에서 새어머니가 모함을 하기 위해 새를 죽여 아이의 이불 아래에 넣는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영화 장화,홍련의 장단점』

영화 장화 홍련에서는 정적인 장면의 긴장감과 사운드 효과를 굉장히 잘 살렸습니다. 특히 사운드의 경우에서는 적절한 사용으로 긴장감을 조성함으로써 뻔한 귀신의 등장도 꽤 무섭게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스토리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지만 퍼즐조각을 여러 곳에 뿌려 놓음으로써 마지막에 이 장면이 이랬구나! 라는 감상을 줍니다. 또한 여러 번 감상을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한다면 귀신의 등장이 뻔히 보이는 고전적인 면이라는 점과 스토리가 장화, 홍련이라는 구전설화와는 별로 닮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적인 장면이 많아 긴장감 조성은 좋지만 지루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